

다니엘서 - 번호 168

예언적 진리의 계시: 대리전들의 두 번째 전투와 144,000의 인치심

Jeff Pippenger

2024-03-30

우리는 이제 다니엘 11장 11절과 12절에 묘사된 대리 전쟁들의 두 번째 전투를 다루고 있다. 그 구절들에 나오는 두 번째 전투는 무신론적 세력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킨다. 그 구절들에서 푸틴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승리하지만, 그의 승리 후에 그는 자기 마음이 높아질 것이며, 그의 자기애적 자기 높임은 그의 워털루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 현재 역사의 역사적 표상은, 현재의 역사가 영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는 자들에게만 유익하다.

10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은 '환상'과 '그 일' 둘 다를 이해하는 자로 드러난다. 그 환상과 그 일은 한 줄기의 진리로서 반복해서 함께 제시되지만, 서로 구별된다. 그것들은 올라이 강과 히데켈 강이다. 그것들은 'mareh'와 'chazon' 환상이다. 그것들은 2,300년의 예언과 연결된 2,520년의 예언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증언과 외적 증언이다. 주님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첫 언급의 원칙에 따르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는 사실은 그가 'chazon'과 'mareh' 둘 모두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의 예언적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환상과 그 일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14만 4천을 대표한다. 그들은 밀러파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열 처녀의 비유를 완전하게 반복하였다. 그들은 밀러파와 마찬가지로 첫 실망을 겪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신론적 'woke'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애굽과 소돔이라 불리는 큰 성의 거리에서 시체로 누워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의 죽음은 용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뻐함'을 가져왔지만, 다니엘에게는 애통을 가져왔다.

십사만 사천의 인 치는 역사는 또한 나사로의 부활로 표상되었는데,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인 치는 행위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 치시는 자들의 상징으로서 그는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을 앞장섰다. 이 입성은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자정 외침의 운동을 예표하였고, 또한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도 그러하였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곡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는데, 이는 10장에서 다니엘이 이십일 일 동안 애통하던 것과 같았다. 10장에서 다니엘의 애통은 미가엘의 강림으로 끝나는데, 그는 바로 그의 "음성"으로 나사로와 모세를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바로 그 인격체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부활은 "마라"의 원인적 이상에 의해 다니엘이 변화되는 것으로 표상된다.

열째 장에서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열한째 장에도 제시되어 있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대표하고 있다. 그 장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두신 백성에게 닥칠 일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자기가 왔다고 분명히 말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한 그 기별은, 예언의 선 위에 예언의 선을 놓는 방법론에 의해 확증되는 기별의 문맥 속에 예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적용 안에서 최초 언급의 법칙은, 함께 가져와진 선들 안에 있는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를 모두 보는 자들만이 올바른 이해를 보게 될 것임을 입증한다. 그들은 "이상"과 "그 일"을 이해하는 자들이다.

십사만 사천은 예언의 메시지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메시지를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지와 경험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지는 진리임이 확증된다. 그것은 예언적 적용의 원칙들을 통해 제시되는데, 그 원칙들은 다름 아닌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하는 원칙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팔모니, 곧 경이로운 수를 세시는 이, 비밀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는 놀라운 언어학자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루는 이러한 요소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확립하고 예언의 체험을 이끌어 내는 예언의 규칙들을 정의한다.

시날의 두 큰 강인 율래와 히데겔은 페르시아만에 이르기 전에, 그 합류 지점 부근에서 샤프트 알아랍이라 불리는 늪지대를 이루지만, 하나의 강으로 합쳐지지는 않는다. 샤프트 알아랍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여러 작은 강과 시내들이 합류하여 형성된 하천 삼각주이다. 그러나 그 삼각주 지역 안에서도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구별되는 강들로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예언의 내적 기별과 외적 기별도 그 구별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것들이 그 결말에 이를 때(마지막 날들에), 여러 기여하는 강들과 시내들을 지닌 하나의 삼각주를 산출한다. 예수께서는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예증하시며, 마지막 날들에는 모든 환상의 효력이 삼각주의 범람지를 형성하지만, 두 큰 강은 여전히 그 구별된 역할을 유지한다.

이십일 일간의 애통의 기간은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있는 기간과 일치하며, 그 기간은 첫 번째 실망과 더딤의 때와 함께 시작된다. 그 기간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성취되는 더 큰 기간 안에서 일어난다. 인침은 1989년인 끝의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셋째 천사로서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오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가데스에서 두 번째 방문으로 인도하셨고, 이번에는 준비된 소수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1989년 끝의 때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경험은 그들에게 인침을 행하지 않았다. 인침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셋째 화의 일곱째 나팔의 첫 음을 발하셨을 때 시작되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마쳐지는 시점이며, 그 비밀은 그 나팔이 울리는 동안 이루어지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나타낸다. 그 나팔은 진리이므로 세 음을 낸다. 첫째 음은 2001년 9월 11일이었고, 둘째 음은 2023년 10월 7일이었으며, 그 세 음 가운데 셋째는 속히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있다. 그 세 음은 진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세 단계이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번의 접촉은 그의 경험을 일곱째 나팔의 세 음으로 표상되는 역사의 기간에 연결시켰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예언적 메시지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전하는 메시지이되, 여기서의 말세는 일반적인 의미의 말세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14만 4천의 인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경험하는

메시지이다.

가브리엘이 11장에 나타난 예언적 역사를 제시하기 시작할 때, 그는 예언의 구체적인 계보들을 제시한다. 처음 두 절은 마지막 때인 1989년에 고레스(첫 번째 부시로서)로부터 시작하여,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여섯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며, 거기서 예언적 역사는 중단된다. 그러다가 셋째와 넷째 절에서 일곱째 왕국으로서의 국제연합(알렉산더 대왕)의 역사가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세계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부유한 여섯째 대통령으로서의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기별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성취되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대 진리이다.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538년에 교황권이 보좌 위에 세워진 역사로부터 치명적인 상처와 마지막 때인 1798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40절을 지지하고 확증해 주므로 본질적이며 중요한 진리이지만,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기간에 일어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예언적 서술도 제공하지 않는다. 10절은 5절부터 9절까지와 마찬가지로 40절의 타당성을 확증하지만, 인치는 때에 성취되는 예언적 역사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1989년을 표시하며, 그러므로 생략을 통하여 1989년부터 41절의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의 침묵의 기간을 설정한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기에 성취되는 역사를 밝혀 준다. 그 절들은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숨겨진 역사, 곧 40절의 1989년과 41절의 일요일 법 사이에 있는 역사 속에 들어맞는다. 그 절들은 매우 분명한 현재의 진리이며, 우리가 그 절들을 이해함으로써 의도된 유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의도된 유익은 두 가지다. 곧 그 안에 나타난 예언적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경험이다.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 곧 인침의 기간에 성취되고 있는 지식의 최종적 증가가 십사만 사천 가운데 있게 될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내적·외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백사십사천의 인치는 때에 절대적으로 속한다. 이는 다니엘의 두 기도가, 곧 2장과 9장에 제시된 두 기도가, 짐승의 형상으로 표상된 예언적 역사를 깨닫기 위한 이중적 기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성취하는 자들에게서 산출되는 경험을 받기 위한 기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외적인 기도는 짐승의 형상을 밝혀 내고, 내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산출한다.

특히 인치는 때에 성취되는 역사를 다루는 다니엘서 11장의 여러 구절들에 표현된 역사에 대한 이해는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로 표상되어 있다. 그는 세 신실한 동료들과 함께 금속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에 담긴 비밀한 뜻을 이해하고자 했다. 느부갓네살의 감추어진 꿈에 표상된 예언적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는 깨달은 자들에게 다니엘서 9장의 기도로 표상된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이루지 않는 한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제10장에서 다니엘로 표상된 경험을 제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사건들의 예언적 서술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예언의 학생으로서 실패하는 것이다. 다니엘 11장 11절과

12절에서, 국경선의 전쟁, 곧 라피아 전투와 남방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표시되어 있는 세 차례의 대리전 가운데 두 번째를 나타낸다. 이 진리의 계시를 보이게 하는 열쇠는 10절에서 북방 왕이 넘쳐흘러 지나가며 요새(목)에까지 이른다고 하신 경이로운 언어학자의 표현에 있다. 그분께서는 넘쳐흘러 지나가는 일을 다루는 다른 두 절도 제공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사건들의 예언적 서술과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산출해 내야 하는 경험을 함께 결합하신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격동되어 강대한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그중 하나가 반드시 와서 넘쳐 흐르며 지나갈 것이며, 그 후에 그는 돌아와 그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다시 격동하리라. 남방의 왕이 분노하여 나와 그, 곧 북방의 왕과 싸울 것이요, 그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가 그 무리를 물리친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요, 그는 수만을 쓰러뜨릴 것이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라. 다니엘 11:10-12.

2014년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제11장 11절에 표상된 이 진리를 인식하기 위하여 예언을 연구하는 자는 먼저 10절이 다니엘 11장 40절의 둘째 부분을 예시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어서 10절이 40절에 덧붙이는 바는, 1989년에 소련이 쏠려 없어졌을 때 북방 왕이 단지 그의 요새("목")에까지 올라갔을 뿐이라는 점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는 자는 이사야 8장 8절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성경 전체에서 단지 세 번만 사용된 한 표현에 의하여 이 세 절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예언적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연구자는 성경에서 "넘쳐 흘러 지나가리라"라는 표현이 세 번 나타나는 것이 의도적인 반복이라는 점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그 세 구절(증인) 모두가 북방 왕이 남방 왕을 공격하는 장면을 제시한다는 데서 확립된다. 함께 볼 때, 두 종류의 내적 증거에 의해 동일한 상징적 역사로 입증된 이 세 증인은, 예언을 연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세 구절을 한 줄 위에 또 한 줄을 더하는 방식으로 서로 포개어 놓도록 이끈다. 그러한 적용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투를 묘사하는 그 구절들의 내용을 확장시킨다.

이사야 7장 8절과 9절은 10절의 '요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는 '요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11장 7절에서 남방 왕이 들어간 그 '요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새'는 다니엘 11장 31절의 '힘의 성소'라는 표현에서 '힘'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따라서 두 구절(7절과 31절)은 '요새'가 한 왕국의 수도나 왕을 가리킨다는 두 증인이 된다. 그 사실이 두 증인(둘 다 11장)에 의해 입증되면, 이사야서 7장 8-9절의 난해한 구절에서 이사야가, '요새'가 한 왕국의 수도이거나 그 왕국의 왕임을 두 가지 내부 증거로 확정하면서, 1989년 이전에 소련—그 수도는 러시아였고 그 수도 도시는 모스크바였는데—의 수장이 미칼 고르바초프였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 고르바초프의 외형적 특징이 그의 이마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이 적용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더딘 자들이여." [누가복음 24:25 참조]

에스라가 기록하였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나아갔고,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굳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20 참조] 요한계시록에서는 들으라는 명령이 일곱 번 주어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견고히 선다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선지자들을 믿는 데 마음이 더디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견고히 세워지고 형통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진리의 인을 때시는 때에, 러시아를 식별하는 것과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작한 전쟁을 분별하는 것이 예언을 지혜롭게 연구하는 자들을 확고히 세운다.

그 진리는 2001년 이후인 2014년에 역사 속에 도래하였으며,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간 안에 위치한다.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1989년 끝의 때로부터 여섯 번째 대통령인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세계주의자들을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10절은 1989년의 역사를 확인할 뿐 아니라 러시아를 "요새"로 확립하며, 이어지는 두 절에서 러시아는 대리전들의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하게 되고, 푸틴은 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절들의 진리는 그것이 표상하는 역사가 성취될 때 인봉이 풀린다.

다니엘은 자기 분깃과 자기 자리에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서로를 해석한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세상에 전한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그것들이 성취됨으로써, 그것들은 스스로를 설명할 것이다. 크레스 컬렉션, 105.

11절과 12절의 예언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역사적으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봉함이 풀리지만, "줄에 줄을 더하여," 이 구절들과 연관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언의 학생이 "넘치며, 지나감"에 관한 세 구절을 함께 결합하기 위해서는, 또한 육십오 년의 예언도 예언의 노선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육십오 년의 예언은 두 개의 이천오백이십 년 예언의 시작점을 표시하며, 그 예언들이 서로 사십육 년의 간격을 두고 시작함을 밝혀 준다. 시작에서 육십오 년을 식별함으로써, 그것은 또한 알파와 오메가가 끝에서 육십오 년을 산출할 것임을 밝혀 준다.

처음과 끝에 있는 각 육십오 년은 모두 세 이정표의 표지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기원전 742년이었고, 그다음은 그로부터 십구 년 후인 기원전 723년이었으며, 다시 그로부터 사십육 년 후인 기원전 677년이었다. 이 세 이정표는 끝에서 1798년, 1844년, 그리고 1863년으로 표상된다. 시작(알파)의 사십육 년은 성전과 군대가 짓밟히는 일을 나타내며, 끝(오메가)의 사십육 년은 성소와 군대가 회복되는 일을 나타낸다. 그때 언약의 사자(곧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께서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사십육 년 동안 자신이 일으키신 성전에 홀연히 들어오실 것이었다.

기원전 742년에 이사야가 예언을 제시한 때에, 그보다 앞선 19년에 뒤이어 오는 46년은, 그 결말에서 46년을 표상하고, 이어서 다시 19년이 뒤따르는 교차 구조를 이룬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19년은, 그 역사에서 일어난 반역으로 인해 성취되지 못한 14만 4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도를 보여주는 예증을 제공한다. 예언의 학생이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2절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업은, (당신이 믿는다면)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는 점뿐 아니라, 그 전쟁이 14만 4천을 인치는 때에 개시될 것이라는 점도 확립해 준다. 그 절들에 나타난 예언적 역사가 중요한 것만큼, 바로 그 역사의 진리가 봉인이 풀리는 역사 역시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19년의 역사로도 대표된다.

1844년은 셋째 천사의 도래를 가리키며,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에 이루어진 셋째 천사의 도래를 예표한다. 1863년은 여리고의 재건으로 상징되는 반역을 나타낸다. 1863년의 이정표는 또한, 속히 다가올 일요일 법 때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십사만 사천의 순종을 예표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들에서, 16절은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을 나타낸다. 11절은 2014년부터 푸틴의 최종 승리에 이르기까지를 표시한다. 이 구절들은 둘째 대리전의 시작을 밝히며, 그 뒤를 이어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은 셋째 대리전이 뒤따른다.

둘째 절을 열한째 절과 열두째 절에 함께 적용해 보면, 우리는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식별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2015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있었고, 이어서 2016년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열두째 절 다음에는 세 번째 대리전에서, 일요일 법 이전의 마지막 대통령의 보복이 뒤따른다. 경계선의 전투인 두 번째 대리전은 여섯 번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의 선거 직전에 시작되었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역사 속에서 에스겔의 두 막대기가 합쳐졌다. 그 결합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냈는데, 이는 십사만 사천 명을 인치는 사업이다. 1844년에 셋째 천사가 도래하여 하늘 성소,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그리고 셋째 천사와 관련된 빛을 열어 주었다. 1849년에 주께서는 대실망 때 흠어짐을 당한 양떼를 모으시려고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셨다. 1850년에 그분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선포해야 할 기별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박국의 둘째 도표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그 도표에는 "옛 도표"와 마찬가지로 "일곱 때"가 포함되어 있었다.

1856년에 그분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 그분의 백성을 인칠 빛의 봉인을 푸셨다. 그 빛은 알파와 오메가께서 윌리엄 밀러에게 계시하신 첫 빛이 더욱 증대된 것이었다. 그것은 고대 여리고 전투에서 반복적으로 표상된 "일곱 때"의 빛이었다. 그분의 백성을 인칠 그 빛은 또한 그들을 깨우고 다시금 필라델피아의 경험으로 돌아가게 할 라오디게아 기별이기도 했다. 그 마지막 빛은 첫 빛의 증가였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 빛을 등한시하여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방황하기를 선택했다. 1844, 1849, 1850, 1856, 1863은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임할 주일법에 이르는 역사 속에 표상된 다섯 개의 이정표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어, 나가는 자도 없고 들어오는 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그 성을 한 번 돌라. 너는 이같이 육 일 동안 할 것이며, 제사장 일곱은 언약궤 앞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을 잡을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들이 숫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고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크게 외쳐 부를 것이니,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은 각기 자기 앞을 향하여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와 궤 앞에서 제사장 일곱이 숫양의 뿔 나팔 일곱을 잡을지니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와 궤 앞에서 지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숫양의 뿔 나팔 일곱을 잡은 제사장 일곱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더라.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고, 후위는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목소리를 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비로소 외칠지니라 하였더라.

여호와와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묵었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궤를 메니라. 또 여호와와 궤 앞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을 든 일곱 제사장이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위는 여호와와 궤 뒤를 따랐고, 제사장들은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더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이같이 엿새 동안 행하였더라. 일곱째 날에는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았으니, 오직 그 날에만 그 성을 일곱 번 돌았더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친 바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다만 기생 라합은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도 그리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너희는 오직 바친 물건을 삼가라. 그 바친 물건을 취하여 너희 자신이 저주받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저주를 받아 화를 당하게 하리라. 그러나 은과 금과 놋그릇과 쇠그릇은 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와 궤 사이에 들일지니라.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외쳤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 백성이 각기 자기 앞을 따라 곧바로 성읍으로 올라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더라.

그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녀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였던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이끌어내라 하였더라. 그 정탐꾼이었던 청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모든 친족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더라. 그들이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렸으나, 오직 은과 금과 놋그릇과 쇠그릇은 여호와와 궤 사이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두었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게 보내었던 사자들을 그가 숨겼음이라. 그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그의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그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여호수아 6:1-27.